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역사의 양면과 시대정신 성경: 에스더 4장 12-17절

Tag:

12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 4:12-17)

역사 해석에는 양면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역사해석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귀적 역사해석이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인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선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인류가 마땅히 그 죄와 저주에 합당하게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부추기는 짓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간섭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역사를 흑역사로 인식하고 인간의 추악하고 무자비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마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위장하고, 그런 역사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해석은 회개를 불러 일으키고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

지만, 흑역사 인식은 왜곡과 과장을 넘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데 사용되고 악한 자들을 양산하는데 사용된다.

역사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악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망친다. 느와르는 진실하고 진정한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고, 원망이고, 분노고, 복수고, 저주이고, 결국은 멸망이다. 영화관에서나 상영되던 흑역사가 이제는 버젓이 교과서에 실리는 시대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역사 해석을 능멸하고 있다.

흑역사를 주장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의 우주를 모두 지워 버리시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신지를 질문한다. 이렇게 질문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아주 그럴듯한 질문인데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마귀적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설마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가능성이 있는 자를 주목하신다. 진실로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 그 가능성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멸망이란 인류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멸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자의 자멸만 의미할 뿐이다.

(시대정신. 각 시대마다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정신이 있었다.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정의롭게 여기는 것 역시 많은 오류가 있을 뿐이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윈스턴 처칠.

-신채호는 늘 입버릇처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민족의 미래는 없다”

역사는 미래다(김준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한국의 선교사 이야기 유튜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근 현대사를 왜곡하며 무의미한 역사로 먹칠을 하고 있는가? 그런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모든 민족에게는 치욕이 있지만, 그것을 치욕으로만 흑역사로만 해석하는 자들에 의해서 민족정신은 소멸되어 간다.

그러나 그 치욕을 딛고 일어서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역사에는 악한 자들도 있었고, 정의롭고 선한 자들도 있었다. 선한 한 사람이 악한 1000사람의 몫을 감당한다.

호머 헐버트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감리교 선교사. 고종의 미국 밀사. 헤이그 밀사. 일제의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해외에 알린 가장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그러나 이미 당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두고 내부거래가 있던 상태. ‘태프트 가쓰라 밀약’-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개인적인 것. 실상은 식민지 시대의 모습. 그때는 그랬다. 만약 한국이 영국의 권유대로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 들였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의 밥이 되었을 것. 그러나 당시 한국은 쇠국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하는 수 없이 세계열강은 일본이 총을 쥐는 것을 허락 방조함. 대러시아용.) 상해 독일은행에 예치된 고종의 내탕고 비자금 인출을 위임받은 자.(미스터 션샤인) 일제가 몰래 빼내감. 1949년 내한 일주일만에 사망. 양화진에 묻힘.)

민족주의가 폐해도 있지만(모든 주의가 그렇다.) 만약 민족이라는 단
위마저 없다면 세계는 그야말로 ‘스타워즈’ 상황이 된다. 세계화가 더
급진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지지는 않는
다. 목사로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계선교의 사명에서 찾는
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훈련하고 있다. 새로운 2차 선교혁명이 한
국에서 일어나야 한다.

왜 하필 우리나라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가 이 사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바로 그런 사명 앞에 서 있다.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요? 자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지가 벌써 한달이 넘
어갑니다. 나도 현재 정치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코가 석
자입니다.

그러하냐, 하나님은 나라를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면하리라만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너의 집은 이미 멸
망하고 너 혼자 남았지 않느냐? 이제 나도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너
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 뿐 아니라 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 죽는다. 도망하여 유대인이 아닌 척 하는 자들은 살아 남게 될 것
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이후 에스더는 3일을 단식하고 정쟁 속으로 뛰어 들어가 승리를 쟁
취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승

리하느냐 멸망하느냐이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만큼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숙제이다. 거창할 수는 없겠지만, 각 시대마다 경건한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우리 또한 그 몫을 잘 감당해야 한다.

우선 나 스스로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 나의 전략적 한표가 나라를 구한다.

내 식구, 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관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관을 지닌 자들을 응원하고, 흑역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형편이 되는대로 구국집회에 참석하여 현장감을 지녀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